

## LA총영사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

일시	장소	비고
2023. 12. 1.(금) 10:00-14:30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국민등록(변경), 신청서 외에 여권 사본은 필요 없으나 여권번호는 필요함
2023. 12. 3.(일) 08:00-15:30	동부사랑교회 (5540 Schaefer Ave., LA, CA 91710)	
2023. 12. 3.(일) 07:30-14: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2023. 12. 8.(금) 10:00-14:30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이하 총영사관)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유권자 등록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총영사관은 그 일환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편의를 제공하고자 순회접수를 실시한다. 순회접수 일정은 위 표와 같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한국 국적자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한국에서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

하지 아니할 사람이다.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한국 국적자로,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권자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명부 등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전용 웹사이트(<http://ova.nec.go.kr>)와 이메일([ovla@mofa.go.kr](mailto:ovla@mofa.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가든그로브시, 집 수리비 최고 5,000달러 지원

가든그로브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 수리를 돕기 위해 최고 5,000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7월 1차 운영했으며, 이번이 2차 지원이다.

주택 수리 무상 지원 신청 기한은 12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1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은 가든그로브시 웹사이트([apply.ggcity.org](http://apply.ggcity.org))에서 하면 된다.

주택 수리 무상 지원금은 주택의 내부와 외부 도색, 배관 공사, 히터 교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전기 공사, 페스트 컨트롤, 창문 교체, 시의 빌딩 또는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주는 최소 500달러의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가든그로브시는 가구 연소득(4인 가족 기준으로 11만 4,800달러 미만)을 비롯해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가운데 약 1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 후 수리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추첨은 오는 1월에 실시한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home-repair-program](http://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home-repair-progr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714) 741-5131, [danay@ggcity.org](mailto:danay@ggcity.org)

## 내년부터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도 메디칼 혜택

내년부터 서류미비자,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은 지난 11월 15일 이 단체와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26~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칼 수혜 자격에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격 대상에 서류미비자도 포함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상원법(SB184)에 따라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청·장년 저소득층 주민은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돼 26~49세 성인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 주민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

UC데이비스 내과교수인 세르지오 아귈라-가시올라 박사(Dr. Sergio Aguilar-Gaxiola)는 "이번 조치로 인해 90만 명의 서류미비자의 건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 환영했다.

DHCS의 미셸 레트키(Michelle Retke) 국장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메디칼 혜택을 받아도 추방 위험이 없으며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추방유예자도 해당되는 만큼 꼭 혜택을 받을 것" 을 당부했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